

“전국 어린이집 4년 새 8000개 문 닫았다”

한국보육진흥원 통계…작년 어린이집 3만923개 2018년엔 3만9171개…해마다 감소 추세 이어져

지속되는 저출생 영향으로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4년 사이 8000여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 현황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만923개였다. 이

는 2018년 3만9171개보다 8248개, 21.1% 감소한 수치다.
어린이집 수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만9171개에서 2019년 3만7371개, 2020년 3만5352개, 2021년 3만3246개, 2022년 3만

923개 등이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5801개였으며 가정 어린이집이 1만2109개로 가장 많았고 민간 9726개, 직장 1291개, 사회복지법인 1254개, 법인·단체 등 610개, 협동 132개 순이다.
이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된 여파로 풀이된다.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

은 지난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감소한 이후 2021년엔 0.81명까지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771명이었으나 2021년엔 26만562명으로 줄었다.
현재 정부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고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나주경찰, 릴레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나주경찰서는 최근 나주시 남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남평읍장 및 이장단 5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완도해경, 2023년 정기 인사발령 단행

완도해경경찰서는 지난 20일, 2023년 전보 지침에 따라 정기 인사발령을 단행 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의용소방대와 함께 119생활안전순찰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의용소방대가 함께 관할구역 내 장애인 가구, 홀몸노인 가구 등 취약 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여수소방, 2022년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관서 시상

여수소방서는 2022년 전라남도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강진소방, 물류창고 네트워크 구축 협력 강화

강진소방서는 최근 겨울철 안전문화 확산과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물류창고 현장 지도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담양소방, “엔택트 시대” 비대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담양소방서는 화재취약시설 요양병원,전통시장 등 총 75개소 대상으로 비대면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尹대통령 부부 사진에 활쏘기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촛불행동 집회서尹 내외·한동훈 사진에 ‘활 쏘기’ 행사 열려 논란 “주최측 ‘풍자’ 주장은 궤변…표현의 자유 보호 안 될 흥축한 저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대통령 내외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을 겨냥한 ‘활 쏘기’ 행사를 연 것이 아동학대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오전 10시에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아동학대

여부와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장관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각 진행할 것과 행사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송례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 중 자

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가 설치한 부스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에 장남갈 활을 쏘는 이벤트가 열렸다.
부스 현수막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한가운데 있는 과녁과 함께 난방비 폭탄, 전쟁위기, 강제정치, 친일매국 윤석열에 활 쏘기라는 문구

가 인쇄돼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시의원은 “국민투표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얼굴에 활을 쏘는 행위는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동”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실상 살인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적인 범죄이자 대단히 야만적인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사람의 얼굴에 활을 쏘게 하는 행위는 끔찍한 아동학대이자 대단히 비교육적인 만행”이라며 “주최 측은 풍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얼굴에 활을 쏘는 행위는 풍자가 아니라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도 없는 흥축한 저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지난 16일 “초등학생까지 활쏘기에 참여시켰다”며 부스를 연 민족위 측을 명예훼손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재환기자

봄철 화재 5년간 5만4400건…수요일 오후 2시 가장 취약

소방청, 최근 5년 3~5월 화재발생 분석 결과 물류창고 등 화재…재산피해 가장 많은 계절 ‘부주의’ 전체 55.6%…담배꽂이가 가장 많아

지난 5년간 봄철 화재 발생 건수가 5만4485건으로 집계됐다. 담배꽂오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았으며 취약 시간대는 수요일 오후 2시로 나타났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월 발생한 화재는 5만4485건으로, 이 불로 27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458명, 부상자 2285명 등이다.
이 기간 봄철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1조4208억원으로, 전체 약 4조

7800억의 32.9%를 차지해 사계절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여름(26.6%), 겨울(21.6%), 가을(18.9%) 순으로 재산 피해가 많았다.
소방청은 최근 봄철에 물류창고, 공장 등에 대형화재가 증가하면서 재산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자료를 요일별, 시간별 열지도(히트맵)로 시각화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요일 오후 2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만279건으로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22.2%), 기계적 요인(9.1%) 순으로 많았다. 부주의 가운데서는 담배꽂오가 1만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43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봄철 계절적 특성 및 위험 요인을 고려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 용접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시 화재안전 조사를 실시하고,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쪽방촌

등 화재취약거주지역 대상으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봄철 화재 주원인인 담배꽂오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행위는 지자체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현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고, 나들이객 등 대상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역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상 기후 등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형화재, 대형 산불 등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정부, 중국발 항공편 증편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 이용객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에 따른 항공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주 6회 수준인 중국발 항공편을 2월 말에는 주 8회로 증편할 계획이며, 오는 3월에는 주 10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주차 차량에 모래 뿌리고 접촉테이프 붙인 40대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주차된 차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4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동구 동명동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대상으로 커피찌꺼기와 모래를 뿌린 뒤 접촉테이프를 붙여 손괴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안·의심 증세를 보이다 치료를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된 받은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전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슬비기자